

# 마트연합 VS 지자체연합 맞붙었다

16일 오전 광주지법 353호 법정에서 열린 이마트·롯데마트 대형마트 2개사가 광주시 동·서·남·북·광산구 청장과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날 심리에서 대형마트 2개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직원, 광주시 5개 구청과 목포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장의 재량권 제한과 절차상 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관사 김재영)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17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물론 부산·강원·경남 등 각 지역에서 동일한 마찰이 불거졌거나 예상돼 재판부 역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조례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8시로 제한하고 매달 2차례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자치구 담당 직원들은 조례를 입법고하기 전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야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VS "절차상 문제가 없다"=태평양 측은 조례시행 전에 대형마트 측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

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담당 직원들은 공청회,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조례시행을 앞섰지만 대형

마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거나 승인을 얻는 것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있어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VS "영세상인 보호"=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피해, 일자리 감소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의 집행을 즉각 정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주장하는 '공익상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들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대형마트의 손해는 미미하며, 대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 광주지법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  
"재량권 남용이다" VS "심사숙고 했다"  
"행정절차도 위반" VS "공청회 거쳤다"  
"손해 너무 크다" VS "영세상인 보호"

이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자치구 담당 직원들은 조례를 입법고하기 전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담당 직원들은 공청회,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조례시행을 앞섰지만 대형

# "백화점 피크타임은 폐점 2시간전"

## 불황여파 반값 마감판매에 고객 몰려

불황으로 백화점 식품관 '떨어 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손님들이 몰리는 황금시간대까지 바뀌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식품관에서 즉석조리 식품 등을 정상가보다 5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마감판매(일명 떨어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폐점 2시간 전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지난달 식품관 폐점 전 2시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보통 백화점 식품관에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황금시간대는 평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 사이, 주말에는 오후 4시30분부터 6시 사이다. 경기불황과 고물가 여파로 마감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는 황금시간대가 평일에는 백화점 폐점 2시간 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리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들의 판매소진율이 95%에 달해 백화점 식품관 매출을 견인

하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포장 상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불황으로 날개 묶음 등 소량으로 포장된 상품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수박, 양배추, 무 등을 1/2 크기로 자른 야채 상품들의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지난 6월 소포장 상품 매출이 전년보다 15% 이상 늘었다. 또 신선식품 부문에서 소포장 상품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정육매장에서 120~180g의 포장육을 판매중이고 와인도 기존 용량(750ml)에 절반인 375ml 용량으로 선보였다.



5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롯데제품 안 팔아"

### 전국 200만 자영업자 불매운동 돌입

200만 자영업자가 국내 최대 유통 재벌 롯데그룹의 모든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유통주점과 음식점은 롯데의 대표 위스키인 '스카치블루'와 소주 '처음처럼'을 불매하는 운동에 나섰다.

유통·금융권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은 스크린골프,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16일부터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자영업단체는 지난 13일 국내 유통 1위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그룹에 보냈다.

지난달 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수용 등을 요구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문에는 "자영업자의 요구를 체인스토어 협회와 대형마트가 거부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이 운동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불매 운동으로 롯데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0만개에 달하는 톨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은 롯데의 '스카치블루', '처음처럼', '아사히맥주'를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료는 생수 '아이스리스', '펍시콜라', '칠성사이다', '실론티', '2%', '옥수수수염차'를 불매하기로 했다. '스카치블루'는 롯데의 주력 위스키로 '원저', '임페리얼'에 이어 국내 시장 3위였으나 불매 운동으로 존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소주 '참이슬'과 격전을 벌이는 '처음처럼' 또한 비랑 끝에 몰리게 됐다. 주류 유통 특성상 유흥음식업에서 불매하면 판로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가족과 시민단체 등을 합한 600만명을 규합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롯데슈퍼 등 유통 부문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 롯데리아 등도 불매 대상이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롯데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외면받게 됐다.

# "롯데마트, 주차장 사용료 내야"

## 광주 경실련 촉구 성명

광주 경실련이 광주시와 자치구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행정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롯데마트가 공익시설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무상으로 독점

이용하는 것은 공익에 문제가 된다"며 "광주시가 롯데마트 측에 합당한 이용료를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사회 공익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지 조사를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내에 문을 연 광주 롯데

마트 월드컵점은 지상 218대, 지하 3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면적에 대해서만 일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인근 염주체육관과 수영장, 주차장 등 3000여면에 가까운 주차장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광주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 주차장"이라며 "롯데마트 이용 고객도 운동을 즐기러 나온 시민도 모두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돈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LG전자는 세계 최대 910리터 용량의 4도어 '디오스'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이고 한달간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특히 이 제품은 세계 최대 용량이면서도 기존 양문형 냉장고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해 주방 기구의 변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워터파크 가면 최대 35% 할인"

### KJB광주카드 한달간 '쿨 썸머 페스티벌'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KJB광주카드 'Cool Summer Festival' 이벤트를 7월 16일부터 8월19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카드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전남지역 워터파크 입장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 중흥골프장과 리조트, '워터파크', 이용시 카드사 최고인 35% 할인, 여수 디오션리조트의 '파라오션 워터파크'와 화순 금호리조트 '아쿠아나'에

서는 3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최대 100만원권 제공 등 휴가비 지원 행사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광주카드 10만원이상 주유를 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주유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전담창구를 통해 광주카드로 결제시 3%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친환경

#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뜯**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탄(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량 500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상 여액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